

대형마트 7,900원 것갈, 양동시장선 2,100원

대형마트 즐겨찾던 장바구니 재래시장 가보고 깜짝 놀랐다

가격 차이 평균 20%나

평소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던 주부 이은숙(38·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주말 양동시장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양동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비해 최대 70%나 저렴한 가격에 먹거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마트에서 7천900원(500g)이던 오징어 것갈이 양동시장에서는 2천100원에 불과했고, 양파도 1kg에 60% 이상 저렴한 7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광주·전남지역의 대형마트가 양동시장이나 목포 청호시장 등 전통시장보다 쇠고기, 상추, 콩나물, 배추 등 먹을거리를 평균 20%가량 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쟁지원센터는 지난달 36개 식품을 대상으로 광주 양동시장과 대형마트간 가격비교 한 결과, 양동시장 식품 가격이 13만5천600원으로 대형마트 17만1천148원 보다 20.8%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 14.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전

■광주 양동시장·대형마트 가격차

품목	양동시장	대형마트	차이%
오징어 것갈	2,100	7,900	73.4
무	600	1,707	64.9
양파	750	2,104	62.8
상추	1,200	3,120	61.5
멸치	2,700	5,980	54.8
콩	2,800	4,980	43.8
쇠고기	31,000	45,480	31.8

(자료:시장경쟁지원센터)

22.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격 차이가 컸다.

또 양동시장은 가격비교가 가능한 30개 품목 중 20개 품목에서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싸다. 오징어 것갈의 가격차이가 73.4%나 되는 것을 필두로 무(1.5kg, 64.9%), 양파(1kg, 62.8%), 상추(400g, 61.5%), 멸치(200g, 54.8%), 쇠고기 등심(600g, 31.5%), 닭고기(1kg, 20.3%) 순으로 가격차이를 보였다. 같은 회사 제품인 치약(160g)도 대형마트보다 34.8%나 저렴했다.

대형마트가 양동시장보다 저렴한 게 파는 품목은 고등어, 동태, 대과, 오이 등 9개 품목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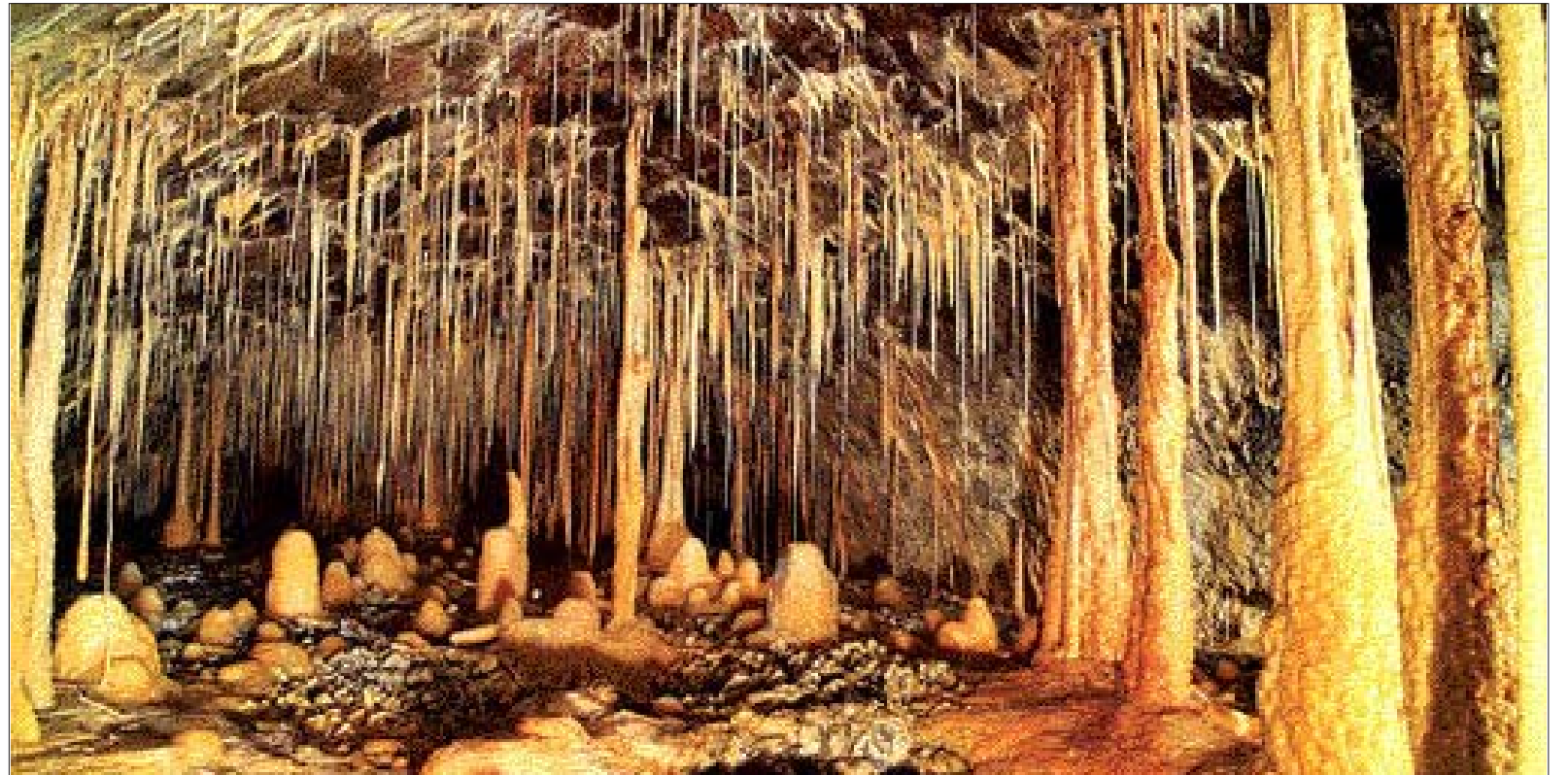
목포 청호시장과 전남의 한 대형마트를 비교한 결과도 유사했다. 청호시장 36개 품목의 가격이 15만7천073원에 그쳤지만 대형마트는 17만7천404원으로 20.6%나 저렴했다.

가격비교가 어려운 2개 품목을 제외한 멸치(200g, 66.1%), 콩나물(66.7%), 오징어 것갈(53.8%), 쇠고기(40.0%) 등 21개 품목이 대형마트보다 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산 갈치(60~70cm), 사과(부사), 대과(1단), 고추장(1kg), 설탕(1kg) 등 13개 품목은 대형마트가 저렴했다.

전국적으로는 전통시장이 17만9천629원으로 대형마트 20만9천860원에 비해 14.4%의 가격차를 보였다.

시장경쟁센터 정석연 원장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제주서 새 용암동굴 발견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당처물동굴 인근에서 새로운 용암동굴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용암동굴은 길이 100m 이상, 최대 너비 5m, 최대 높이 1.8m 규모다. /연합뉴스

전남도 하반기 예산집행 초비상

지방세·교부세 감소 따라 3,200억 부족할 듯 광주시는 지방세수 크게 늘어 재정운용 숨통

올 들어 전국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감소와 재정조기집행 및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16일, 올 상반기 중 국내 경기가 급추락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시중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자체 이자수입까지 줄면서 당초 예상보다

1천200억 원의 세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도는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11조4천억 원대의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전남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가 69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정 조기집행 및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230억 원, 그리고 지방세 감소 예상액이 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특히, 올 하반기 주요시

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2천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3천200억 원대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 1천여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상반기 1조5천200억 원을 조기 집행, 전국 최초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한 광주시는 오히려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 하반기 사업 추진의 부담을 덜게됐다. 수반지구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

해 지방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400억~500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간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세입을 지난해 세입보다 2.8% 낮게 책정했으나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

다만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385억 원 줄어 이를 정부로부터 연 2.5%의 금리로 용자를 받아 이자 손실이 예상되며,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이자소득이 60억 원에서 10억 원이 줄어든 정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최근 시 금고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750억 원도 앞당겨 갚았으며, 다음달 2차 추경, 연말 3차 추경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홍행기·윤현성 기자 redplane@

5월단체 “별관 해법 시도민대책위에 일임”

농성 해산도 시사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중인 5·18 단체들이 '5·18 사회적응형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이하 시도민 대책위)에 별관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한다.

또 박광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0인대책위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별관을 물리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고 확약할 경우 즉각 농성을 해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6일 오후 광

주시 동구 신성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5·18 단체의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5·18단체들은 “그동안 별관 보존 농성을 비롯한 모든 활동과 성과, 향후 모든 책임과 권한을 시도민대책위에 위임한다”며 “10인 대책위원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합의 해 별관 강제철거와 펜스 설치 등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확인된다면 즉각 농성을 해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별관 원형보존 입장을 고수해 온 5월 단체들이 한 걸음 물러나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시도민대책위와 '10인 대책위'가 마련한 합의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월 단체가 전권을 넘긴 시·도민대책위는 그동안 별관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인 '오월의 문(별관 전체건물을 살리되 1, 2층 일부를 철거 게이트를 만든다)'를 제안했던 모임으로 진보연대, 참여자치 21 등 광주·전남 50여개 단체가 회원 단체다.

그러나 5월 단체들은 여론조사로 별관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미정상회담 핵우산 명문화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자정(한국시각) 한미 관계를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내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북한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반영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역지력의 공약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한다는 내용도 미래비전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여름 휴대 패키지
취미/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교통요지 대로변 최고의 "황금상권"
운암동 "로테오 빌딩"
분양·임대

확! 달라진 분양·임대 조건!!!

고객중심의 경영태도 분양·임대 가능! 2만세대가 넘는 탄탄한 고정 고객 확보!

신양·임대문의 ☎0621571-5600, 511-7878